

아주 특별하게 지은 중원경교회

남 기 완 (목사, 충북 충주 엄정교회)

1. 특별한 교회 짓기

교회를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교회를 짓고 싶다는 생각일 것이다. 돋보이는 건축미와 규모 그리고 남다른 구조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부러워할 교회를 짓고 싶은 욕심이 있기에 더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지어야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 많은 목회자들이 특별한 건축을 위해 시도하는 것이 더 높게 더 넓게 그러면서 더 싸게 건축하려는 생각에 얽매어서 자칫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도 결국 그저 그런 평범한 교회를 짓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한 건축을 하려면 건축 동기에서부터 건축 계획, 건축 설계에 좀더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목회자의 목회철학, 교회론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건축 동기를 생각하자.

‘교회를 새로 지으려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예배 공간이 부족하여서 지으려 하는

것인지, 부족공간이 없어서 목회 활동에 제약을 느껴서인지, 건물이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혹은 교회가 너무 초라하여 지역사회에서 업신여김 받는 듯해서 새로 지으려하는지, 명확한 건축 동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를 지으려는 동기를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어쩔 수 없어 짓는다는 입장이다. 교회가 비좁다거나 낡았다거나 초라하다는 등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짓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건축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이 이야기하는 동기들이다.

둘째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보다 나은 예배, 섬김, 친교를 위해 짓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목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렵더라도 건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건축 동기의 차이가 결국은 건축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건축 동기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물도 낡고 초라한데다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목회활동을 위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고 미래의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건축을 해야 한다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예배와 공동체를 위한 동기로 건축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치밀한 건축계획

건축계획도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돈키호테식으로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 식으로 신중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건축 계획이라면 건축비 문제, 설계자 선정, 업자 선정 등으로 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건축 계획이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금 문제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한번

지면 수십 년 사용하게 될 건물에 대해 빈틈없고 세밀한 구상과 검토, 다른 교회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한 완벽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건축계획을 부실하게 할 경우 그저 남들 짓는 대로 짓거나 목회자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짓기 때문에 짓고 난 후에 후회할 일들이 많게 된다. 너무 평범하고 틀에 박힌 교회를 짓는 목회자 중에는 교회를 여러 번 지어서 건축에는 일가견 있다고 자부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은 도급업자나 목수의 역할과는 다른 것이다. 새로 짓게 될 교회에서의 활동 등을 머리에 그리며 그에 합당한 공간들을 구상하여 건축 계획을 세우는데 있다. 이 단계에서 목회자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경험을 겸허하게 듣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건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목회, 영상 예배, 열린 예배라는지 부속 공간에서 이루어질 활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정리하면서 그에 합당한 공간 연구하면서 건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설계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값진 투자

그 다음은 설계이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목회자들에게 무시되기 쉬운 부분이다. 무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쓸데없이 돈이 들어가고 시간 걸리는 귀찮은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새로 지은 교회를 둘러보면서 “누가 설계했지요?” “어떻게 설계했나요?” 하고 물어보면 가끔 “내가 했어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걸 듣는 수가 있다. 이 말은 물론 자신이 연필을 들고 도면을 그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이렇게 하고 평면은 이렇게 구성하고 자재는 이렇게 쓰도록 설계자에게 지시(?)했다는 말이다. 목회자의 이런 태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설계자를 건축의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목회에는 목회자가 전문가이듯 건축에는 건축사가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인 목회자의 생각에는 이렇게 밖에 구상할 수 없을 때 설계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 넘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을 구상해 낼 수 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그에 필요한 공간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어서 유기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고 설계사의 제안을 검토하면서 완벽한 도면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목회자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설계자의 역할이고 그들의 달란트인 것이다.

4) 교회 건축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교회관이 집약된 작품

이렇게 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은 받되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교회론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 건물만 봐도 건축한 목회자의 목회관을 엿볼 수 있다.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의 경우 높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종탑도 높고 첨탑형태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단도 높게 만들곤 한다. 반면에 섬기는 목회, 지역 사회 봉사에 관심있는 목회자는 교회를 짓되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쓰며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과 함께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으려는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 철학을 돌아보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목회자가 자신이 지은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교회나 별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요즘 지어진 평범한 시골교회의 모습은 대개 이렇다. 이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층은 교육관, 친교실(식당), 사무실,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고 공간을 넓히기 위해 현관의 로비나 계단은 좁고 가파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층에는 보통 본당이 있다. 그리고 한사람이라

도 더 앓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강단도 좁히고 입구 쪽도 비좁게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벽돌을 특별한 것을 사용하였든지 내부 마감재를 특별한 것을 사용하였든지 난방 방식이 독특한 것을 가지고 본인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 꿈을 이룬 중원경 교회

1)역경을 기회로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원경교회(담임목사: 권태구)는 IMF의 역경을 자신들이 오래 기도해 오던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기회로 삼은 교회이다. 원래 도심지 상가 3층에서 개척한 이 교회는 상가 교회의 설움 속에서 넓은 터 위에 그림 같은 전원교회를 꿈꾸어 왔는데 꿈꾸며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은 교회이다. 호암지라는 아름다운 호수와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 옆에 1287평의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특별한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것이다.

개척 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던 이 교회는 IMF로 많은 교인



중원경교회 전경
예배실과 교회이름이 써있는 구조물(친교실)이 보인다.

들이 직장을 잃고 타지로 떠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급한 돈이 필요했던 땅 주인의 간청으로 쓸모 없는 것처럼 보였던 현재 대지를 시가에 한참 못 미치는 1억2백만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상가에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대지를 구입하였다.

성도들과 함께 꿈꾸며 기도했던 교회는 넓은 대지에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전원교회를 짓고 가능하면 학원 선교에 주력을 하고 있었기에 대학교 근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2) 목회 비전이 반영된 건축 계획

권 목사는 자신의 건축 계획을 세우면서 목회 비전을 정리하였다.

- (1) 교육목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이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즐겁게 뛰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 (3) 예배 후 교제와 소그룹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 (4) 각 대학교의 기독 학생회의 모임이나 수련회 장소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 (5) 장차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를 마련하고 대학생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배실이 단순 예배 기능 뿐 아니라 세미나실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으며 유아용 수영장, 농구장, 캠프프라이어장을 마련하였고 약 700평 정도 되는 마당을 잔디밭으로 가꾸었다.

3) 건축 개요

중원경 교회는 건평 120평이며 건축비는 토목공사와 부대 비용까지 합쳐 1억 2천만원이 들었다. 건축비가 저렴한 것은 경

량 철 골조에 샌드위치 패널을 주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조립식 건물인데 이 자재를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해 권 목사는 건축비의 부담이 없고 공간 변경이 자유로와 교회가 부흥하거나 새로운 공간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증축하거나 개조가 손쉽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립식 주택에 대한 ‘값 싸 보인다’ ‘임시 건물 같다’ ‘아름답지 않고 건축물이 단순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식해서 몇 가지 보완을 하였다.

첫째로 유리창을 많이 사용하여 건물의 품위와 함께 채광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하였다.

둘째로 외벽에 연보라색 페인트를 칠하여서 색다른 느낌이 들게 하였다.

셋째로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 위에 보온 덮개를 덮고 슬레이트를 시공한 후 분체 도료로 칠하여서 품위를 높였다.

넷째로 내벽에는 시멘트 벽돌을 줄 눈 맞춰 쌓고 페인트를 칠하여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외관상 특징은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을 들 수 있다. 이 구조물은 비용이 그리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건물의 품위도 높이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다. 설계자는 이 구조물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느끼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구조물을 따라 가면 높고 널찍한 현관이 나와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 현관에서 신을 실내화로 갈아 신고 들어가면 패널에 맞춰 자연스럽게 신발장이 놓여 있다. 동선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자그마한 로비를 지나 왼쪽으로 예배실이 있었다. 예배실은 언뜻 세미나실을 연상하게 하였다. 보통 사용하는 예배용 장의자가 아니라 세미나실용 책상과 걸상이 놓여 있었다. 면적은 65평정도 되었다. 이 예배실의 특징은 강단 쪽에 있었다. 회장을 칠 경우 평범한 전면이지만 회



예배실 강단 전면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휘장을 벗기면 바깥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다.

장을 걷으면 아름다운 정원이 유리창을 통해 보여서 시원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강단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예배실은 특별히 천장 공사를 하지 않고 골조를 노출을 시켰다. 등은 등근 메탈등을 설치하여 매우 밝았다. 바닥은 카펫을 깔아서 정숙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예배실을 나와서 다시 로비에 서면 정면으로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왼쪽으로 사랑방이 있고 오른 쪽으로 식당과 주방이 있다. 그런데 주방으로 가는 통로가 한옥의 툇마루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져서 정답게 느껴졌다.

중원경 교회에는 특별한 공간이 몇 군데 있다. 첫째가 사랑방 같은 친교실이다. 예배 후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는 위치에 있어서 예배 후 모여서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툇마루 같은 통로 앞에 있는 양지바른 마당이다. 어린 시절 양지바른 곳에 삼삼오오 모여 놀던 생각이 난다. 정겨운 공간이었다. 현관과 구조물이 연결되어 지는 부분도 독특한 공간이다.

구조물은 마치 길 안내를 하듯 서있고 현관에서는 낮에는 햇볕이 밤에는 불빛이 흘러나오게 하여서 빛으로 인도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주방 옆에는 아담한 방이 은밀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봉사자들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하였다.



예배실 모습 : 예배실이라기 보다는 세미나실 같은 분위기이다

3. 결론

중원경 교회는 저렴하면서도 웅장하고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며 누가 보아도 평범하지 않고 눈여겨보게 되는 건물이다.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도 일치하고 설계자가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건물이다. 아름답고 특별하면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비문제로 교회 건축을 망설인다면 참고해볼 만한 교회이다.

중원경교회 주소

충북 충주시 호암동 618-2 ☎ 043) 854-5076/7